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련성 및 관련 요인 분석

정상정¹, 정남해^{2*}

¹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²동서대학교 바이오헬스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Analysis of the Correlation and Related Factors between Fieldwork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r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Occupational Therapy

Sang Jung Jeong¹, Nam Hae Jung^{2*}

¹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Dongseo University

²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health Convergence, Dong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 준비 행동과 관련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23년 12월까지 임상실습을 완료한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 117명이었고, 임상실습 만족도, 진로 준비 행동 질문지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방법으로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ANOVA, 피어슨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내적일치도는 0.96이었고, 진로준비 행동 도구의 내적일치도는 0.92이었다.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의 학년, 성별, 전공 선택 이유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 준비 행동은 차이가 없었고, 임상실습 시간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는 진로 준비 행동 간에는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진로 준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더 많은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 및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the fieldwork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and to determine the effect of fieldwork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17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who completed their fieldwork by December 2023.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using fieldwork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n the SPSS 24.0 software. The internal consistency score of fieldwork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0.96 and 0.92, respectively. There was no difference in fieldwork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epending on the grade, gender, and reason for choosing the major. Fieldwork satisfaction differed depending on fieldwork time per week. In addition,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fieldwork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ieldwork satisfaction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future, there will be a ne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fieldwork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a larger popul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Keyword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ducation, Fieldwork Satisfaction, Occupational Therapy, University Student

본 논문은 2023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Fronti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Nam Hae Jung(Dongseo Univ.)

email: whitenam-hae@nate.com

Received April 16, 2024

Revised June 12, 2024

Accepted July 5, 2024

Published July 31, 2024

1. 서론

작업은 개인, 가족, 지역 사회에서 삶에 의미와 목적을 갖기 위해 하는 일상생활 활동을 의미한다 [1]. 작업치료사는 발달, 신체 및 정신적인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작업 요법적 치료를 통해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하며 돕는 보건의료 인력이자 의료 기사이다 [2]. 우리나라 작업치료사는 재활병원,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 센터, 복지관, 운전 재활 등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문성이 넓어지고 범위가 폭넓어지면서 작업치료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원되고 있다.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학)과에 입학하여 교육과정 및 임상실습을 완료하고 국가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특히, 임상실습은 대학생이 이론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주는 결정적인 경험이다 [3]. 세계 작업치료사 연맹의 임상실습 기준을 살펴보면 임상실습은 1,000시간 이상, 하나의 기관에서 2개월 이상의 실습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항목인 임상실습 교육, 시간, 적합성 등보다 질 높은 임상실습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임상실습은 배운 지식을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시켜 작업치료사로서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며 작업치료사에 대한 역할 인식과 함께 전공 선택 및 진로 준비에 영향을 미친다 [4].

진로 준비 행동이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충실하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 [5]. Ginzberg와 Super에 따르면 대학생은 탐색기-초기 확립기에 속하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흥미, 자신의 가치관, 욕구들을 파악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찾아냄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필요로 하며 이를 준비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6]. 진로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다양한 요인을 종합하여 자신의 미래를 결정 지으며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7]. 진로 준비 행동은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에 대한 동기를 높여주며 졸업 후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8]. 이러한 진로 준비 행동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자기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진로에 관한 긍정적인 경험과 탐색

을 통해 지속할 수 있게 된다 [9]. 이와 관련하여 간호 전공,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가 있다. 하지만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 준비 행동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작업치료(학)과 재학생 중 임상실습을 완료한 학생이었다. 연구 윤리에 맞추어 연구 설명을 하였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설문조사는 네이버 폼을 사용하여 2023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 수준 0.05, 효과 크기 0.3, 검정력 0.95로 하였을 때 최소 111명이 도출되었으며, 연구에 사용된 통계 자료는 117명이었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 및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특성, 전공 선택 이유를 조사하였다.

2.2.1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김영순과 김연선(2010)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9]. 임상실습 만족도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결과,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은 .96 이었다. 5점 리 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하였다. 임상실습만족도 설문지의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구성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표본적합도(MSA)는 0.932로 나타나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2033.459$, $p=0.000$ 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만족도 척도'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Table 1. Summary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Fieldwork Satisfaction

Items	Factor	
	1	2
Item 7	.893	-.541
Item 6	.874	-.586
Item 10	.819	-.679
Item 5	.798	-.664
Item 9	.786	..614
Item 1	.765	-.640
Item 8	.749	-.620
Item 12	.746	-.693
Item 4	.737	-.553
Item 15	.725	-.575
Item 14	.723	-.637
Item 11	.714	-.604
Item 2	.698	-.518
Item 3	.638	-.490
Item 13	.623	-.600
Item 18	.690	-.916
Item 19	.712	-.882
Item 20	.746	-.876
Item 17	.711	-.729
Item 16	.710	-.724
Eigenvalue	11.974	1.222
Variance(%)	59.869	6.108

KMO=0.932 Bartlett=2033.459 df=190 sig=.000

2.2.2 진로준비 행동 도구

진로준비 행동은 최윤경, 김성희(2016) 연구의 진로준비 행동과 관련된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점수 척도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채점하였다. 이는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진로준비 행동 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15-18, 25문항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0.5 미만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제거한 후 분석한 결과, 표본적합도는 0.885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chi^2=1677.492$, $p=0.000$ 으로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4개의 하위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설명력이 낮은 5개 문항을 삭제한 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0.929이었다.

Table 2. Summary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tems	Factor			
	1	2	3	4
Item 5	.810	.336	-.595	-.301
Item 3	.764	.177	-.602	-.312
Item 9	.754	.154	-.409	-.179
Item 6	.746	.336	-.471	-.265
Item 8	.725	.265	-.525	-.260
Item 10	.691	.110	-.457	-.125
Item 4	.689	.281	-.616	-.387
Item 20	.125	.784	-.377	-.585
Item 21	.183	.753	-.449	-.734
Item 14	.142	.737	-.217	-.333
Item 19	.085	.716	-.378	-.486
Item 13	.286	.692	-.337	-.408
Item 11	.351	.682	-.459	-.406
Item 12	.506	.636	-.548	-.337
Item 2	.625	.421	-.968	-.309
Item 1	.738	.394	-.913	-.350
Item 7	.601	.251	-.636	-.368
Item 24	.143	.620	-.364	-.827
Item 22	.174	.629	-.380	-.794
Item 23	.323	.297	-.271	-.738
Eigenvalue	8.664	3.328	1.176	1.014
Variance(%)	43.320	16.642	5.880	65.843

KMO=0.932 Bartlett=2033.459 df=190 sig=.000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 24.0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며, 실습 기관과 대상 분야는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다중 응답 분석을 사용하였다. 임상실습 만

족도와 진로준비 행동은 피어슨 상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학과 선택 이유와 실습 기간, 학년에 따른 실습 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 간의 차이는 ANOVA를 사용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117명으로, 남성 43명(36.8%), 여성 74명(63.2%)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3년제 71명(60.7%), 4년제 46명(39.3%)으로 3년제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들은 모두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학과 선택의 이유로는 자신이 선택한 이유가 3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주변 사람의 권유, 취업이 잘 되어, 성적에 맞추어 선택한 순서였다.

대상자들은 모두 임상실습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실습 대상 및 실습 기관은 중복 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실습 대상은 성인, 아동, 노인 순으로 선택이 많았으며, 실습 기관은 아동 발달 센터, 재활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많았다 (Table 3).

3.2 대상자 및 실습특성에 따른 실습만족도의 차이

성별, 학년, 학과 선택 이유와 실습 시간에 따른 실습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성별, 학년, 학과 선택 이유에 따른 실습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습 시간에 따른 실습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Table 4). 실습 시간이 7시간인 경우 실습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9시간인 경우 실습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3.3 대상자 및 실습특성에 따른 진로준비 행동의 차이

성별, 학년 및 학과 선택 이유와 실습 시간에 따른 진로준비 행동을 분석하였다. 이들 요인에 따른 진로준비 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Table 5).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 Fieldwork Information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	Percentage
Gender	Male	43	36.8%
	Female	74	63.2%
Type	College	71	60.7%
	University	46	39.3%
Grade	3 grade	71	60.7%
	4 grade	46	39.3%
Reason for choosing a major	self-selected	43	36.8
	Recommendations by the teacher	11	9.4%
	Recommendations from other people	28	23.9%
	Got a good jobs	16	13.7%
	based on grades	16	13.7%
	Etc	3	2.6%
Fieldwork Subject	Adult	96	82.1%
	Senior	76	65.0%
	Child	84	71.8%
Institute for Fieldwork	University Hospital	43	36.8%
	General Hospital	45	29.9%
	Rehabilitation Hospital	53	45.3%
	Nursing Hospital	22	18.8%
	Children's Center	79	67.5%
	Dementia Relief Center	6	5.1%
Fieldwork time	7h	11	9.4%
	8h	58	49.6%
	9h	41	35.0%
	Etc	7	6.0%

Table 4. Differences in Fieldwork Satisfaction

		Mean ± SD	F or t (post-hoc)
Gender	Male	77.6 ± 15.0	.864
	Female	77.1 ± 15.6	
Grade	3 grade	77.6 ± 16.0	.675
	4 grade	76.7 ± 14.4	
Reason for choosing a major	self-selected	78.8 ± 14.4	1.691
	Recommendations by the teacher	75.0 ± 16.1	
	Recommendations from other people	77.5 ± 15.6	
	Got a good jobs	79.0 ± 18.5	
	Choice based on academic score	77.0 ± 11.0	
Fieldwork time	7h ^a	83.6 ± 13.5	3.512* (a,b)<c)
	8h ^b	80.19 ± 13.4	
	9h ^c	71.4 ± 17.0	

Table 5.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an±SD	F or t
Gender	Male	69.69±14.5	.475
	Female	67.79±13.4	
Grade	3 grade	67.7±15.2	.186
	4 grade	68.8±13.8.5	
Reason for choosing a major	self-selected	71.0±13.6	.432
	Recommendations by the teacher	67.4±13.5	
	Recommendations from other people	67.8±13.7	
	Got a good jobs	67.8±18.0	
	Choice based on academic score	66.6±10.1	
Fieldwork time	7h	74.8±14.3	.386
	8h	68.3±13.1	
	9h	66.7±14.4	

3.4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 간의 상관성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상관계수는 0.707로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6).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Fieldwork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Preparation	
	r	p
Fieldwork Satisfaction	.707	$p<0.01$

* $p<0.01$

4.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준비 행동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단순선행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공차한계는 1.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 (VIF)도 1.0으로 10을 넘지 않아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분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104.682, p < 0.01$). 수정된 R2 값은 0.472로 47.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실습 만족도는 $B = 0.636$ ($F = 115.052, p < 0.01$)

으로 실습 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습 만족도가 높아지면 진로준비 행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able 7. The Effect of Fieldwork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Factor	t(p)	F(p)	Adj. R ²
	B	SE	β			
constant	19.364	4.669		4.147*		
Fieldwork satisfaction	0.636	0.059	0.707	10.726	115.052	0.500

5.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실습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의 차이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자가 임상실습을 완료한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제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 설문지에 대해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준비 행동 설문지에서 5개 문항이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5개 문항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대학원 진학, 체력 관리, 학점 관리, 유망직종 검색이었다.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은 추후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게 되고 합격하면 작업치료사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또한 작업치료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전문직인 작업치료사로서의 취업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10]. 따라서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들은 다른 자격증 취득이나 대학원, 다른 직종 준비 등에 대한 문항은 설명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학년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 및 진로준비 행동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임상실습을 완료한 학생들로, 대학교육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모두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학년이 다르지만 모두 졸업을 앞둔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이기 때문에 진로준비 행동에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학제유형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따라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 2,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경리와 이현주[12]의 연구에 따르면 전공 선택 이유에 따라 진로준비 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김경리 등[11] 연구에서는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생들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공 선택 이유에 따라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작업치료 전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업치료 전공은 진로가 다른 전공에 비해 명확하고 임상실습을 통해 진로 정체성이 확립되고 진로준비 행동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평균 하루 실습 시간은 실습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습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향숙 등[12]의 연구에서는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용미현[13]의 연구에서는 낮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주당 7, 8시간인 경우 9시간보다 실습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고 본 연구에서 실습시간이 실습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더 많은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학생들이 2곳 이상 임상실습을 다녀왔기 때문에 실습기관이나 주요 실습 대상자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추후 임상실습 한 곳을 다녀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실습기관 및 주요 실습 대상자 등의 변인에 따른 실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과 취업 준비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8]. 본 연구결과, 실습만족도는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전공, 간호전공,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14-16].

본 연구는 임상실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전공의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을 전수조사하지 못한 점이다. 추후 더 많은 작업치료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만족도 및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 관련 요인 및 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년, 성별, 전공 선택 이유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및 진로준비 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임상실습 시간은 실습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7~8시간인 경우에 9시간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는 진로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으면 진로준비 행동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임상수행 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진로 준비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추후 더 많은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기관별, 주요 실습 대상자 등 더 많은 변인과 임상실습 만족도 및 진로준비 행동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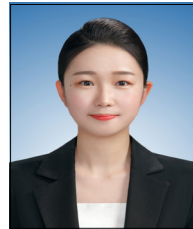
- [1]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4th ed.)",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74, Suppl.2, pp.1-87, August, 2020. DOI: <https://doi.org/10.5014/ajot.2020.74S2001>
- [2] Korean Accreditation Board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2024.
- [3] M.R. Won, Y.J. Kim, "Career Attitude Maturity its Predictors of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llege Counselling & Research, Vol.19, No.1 pp.57-72, 2013.
- [4] M. K. Choi, Y. S. Jun, W. J. Hong, S. K. Kim, D. H. Kim et al.,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valuation of students' spot-practice i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Vol.33, No.2, pp.373-380, 2004.
- [5] Y. K. Choi, S. H.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5, pp. 2085-2097, 2012.
- [6] H. R. Lee, "A critique of super's career development theory."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10, pp. 19-25, 1991.
- [7] Y. J. Lee, "A study on improvements in career guidance service system at college level in Korea

through demand surve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5, No.4, pp.1095-1110, 2004.

- [8] Lee SG, Lee JK.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21, No.3, pp.1-25, 2008.
- [9] Y. S. Kim, Y. S. Kim, “A study about th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with clinical training pla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34, No.4, pp.543-552, 2010
- [10] G. I. Shin, Y. S. Woo, H. Y. Park, J. R. Kim, “A study on career selection status and career confidence in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25, No.3, pp.153-169, 2017.
DOI: <https://doi.org/10.14519/jksot.2017.25.3.12>
- [11] K. L., Kim, H. J. Lee,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6, No.2, pp.453-465, 2022.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2.16.2.453>
- [12] H. S. Lee, J. S. Noh, J. J. Cha, “The change of awareness of decision on employment though the fieldwork for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18, No.1, pp.107-120, 2010.
- [13] M. H. Yong, “A study on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3, No.1, pp. 167-173, 2019.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9.1.13.1.167>
- [14] H. W. Kang, M. K. Kim, Y. J. Sim, S. Y. Jung, H. Kim, “The effect and correlation of field work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students majoring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in Occupational Therapy, Vol.10, No.1, pp.25-33, 2023.
- [15] S. K. Kim, R. U. Kang, E. Y. Kim, J. E. Moon, J. H. Jang, E. S. Jung “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8, No.2, pp. 239-251, 2018.
DOI: <https://doi.org/10.13065/jksdh.2018.18.02.239>
- [16] J. S. Lee, J. E. Hong, M. S. Won, S. H. Park,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 2, pp.124-133,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2.124>

정 상 정(Sang-Jung Jeong)

[정회원]



- 2022년 2월 : 동서대학교 바이오 헬스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학사)
- 2023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관심분야>

작업치료, 아동

정 남 해(Nam-Hae Jung)

[정회원]



- 2012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석사)
- 2017년 2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 작업치료전공 (이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바이오헬스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작업치료, 인지, 감각통합